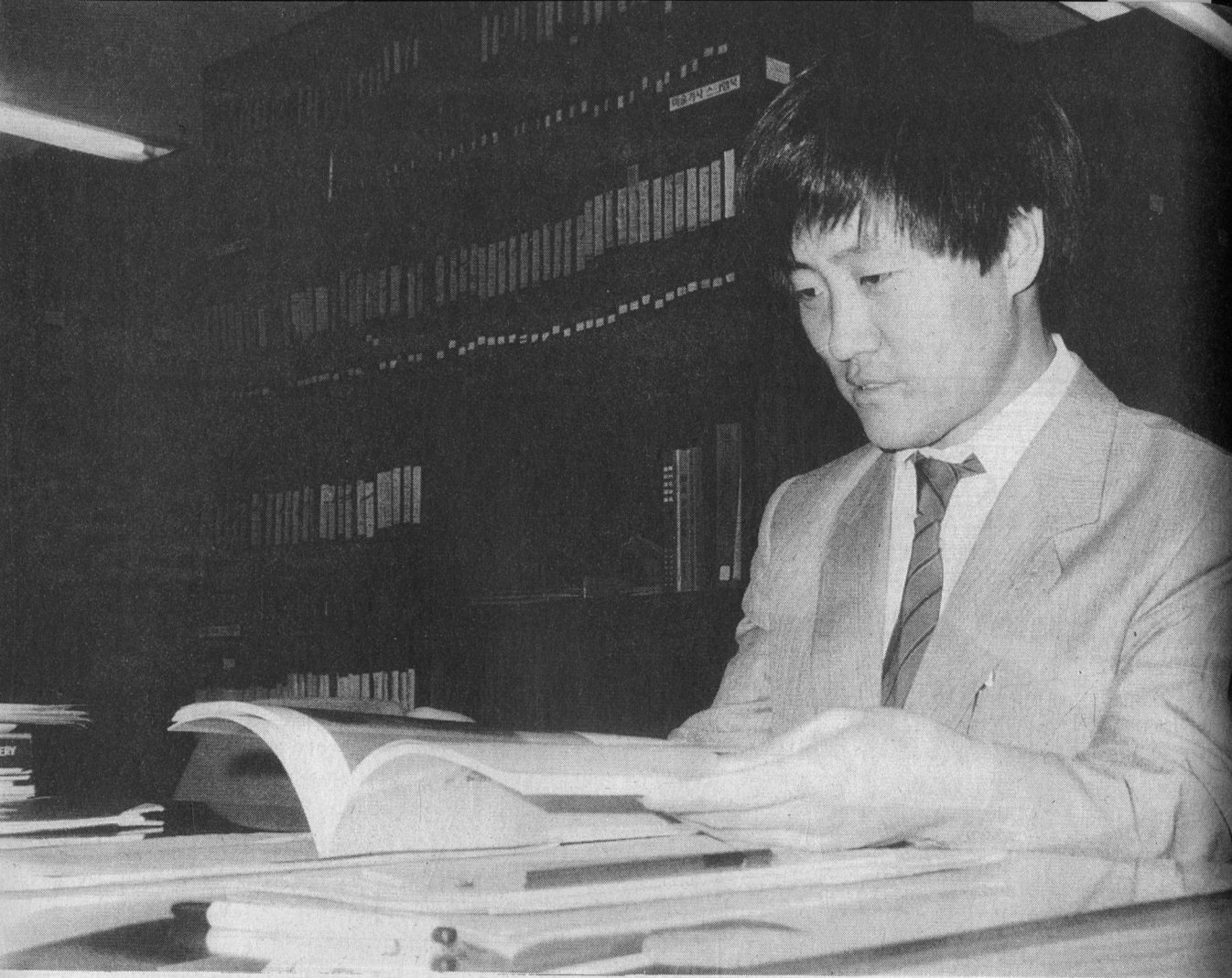




미술자료전문가

김달진

‘결혼
전날에도 화랑 다니며
팜플렛 모아’

20년간 수집...3천5백여명 화가 내력 줄줄
‘걸어다니는 자료실’ ‘살아있는 컴퓨터’

미술계에서 ‘걸어다니는 자료실’ ‘살아있는 컴퓨터’로 불리는 ‘자료박사’가 있어 화제. 미술에 대해 알지도 못하던 중학시절부터 잡지의 그림이나 팜플렛 등을 모으며 화가 3천5백여명의 자료를 머리에 입력한 이는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직원 김달진씨(37).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의 삶.

〈노옥진 기자〉



처음엔 우표 모으기 시작 회사 취직 후에도 스크랩

미술계의 국외자이면서도 미술에 대해 광적일 정도의 애정을 가진 김달진씨(37)는 미술과 관련된 자료라면 어디든지 뛰어가서 수집해오는 미술자료전문가. 165cm의 자그마한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과 열정이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다.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 있는 미술자료의 대부분은 김씨가 수집한 것이다. 전시회 팸플릿도 화가별, 그룹별, 날짜별로 보기 쉽게 분류해놓았다. 그 작업을 하면서 웬만한 것은 다 외어버린다. 간혹 그에게 어떤 화가의 약력이나 그의 작품 경향, 하다못해 집 전화번호까지 알려 달라 하면 심중팔구 정

확한 답을 준다. 그래서 미술계에선 그를 가리켜, '인간 자료실' '살아있는 컴퓨터'라고 말하곤 한다.

"단 하루만 지나도 역사가 되는 소중한 자료를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싶었지요."

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튼튼한 쇼퍼백을 들고 화랑가를 돈다. 시청 근처의 신세계·롯데 미술관에서 출발, 프레스센터와 사간동·관훈동·인사동을 거쳐 동숭동까지 30여개의 화랑에 들르면 하루가 다 간다. 우편에 의존해도 되지만 그는 직접 수집하러 다닌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모으려는 집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 구겨져 있는 신문도 그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행여 미술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지나 않은지 펴서 훑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면서도 그는 한마디 불평도 없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차체만으로 만족할 뿐이다.

충북 옥천이 고향인 그는 20여년

◇공휴일엔 가족과 함께 가까운 유원지를 찾곤 한다.

전부터 미술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표를 모으다가 중엔 신문, 잡지에 실린 예쁜 그림에 빠져들었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의 그림이 어느 한 부분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가위를 가지고 덤벼들었다. 무엇인가 미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그저 예쁜 그림을 갖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에서 그리했다. 어린시절, 좀 모자라는 것 아니냐는 치욕스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는 학교공부보다도 자료수집에 열중했다. 중학생 때 그는 이영환씨의 <서양미술사>를 독과한 후 더욱 미술에 애정을 갖게 됐고, 72년 경북공에서 열렸던 <한국근대미술60년전>을 본 후 미술자료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전시회는 1900년부터 60년까지의 한국화단을 정리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도 팸플릿에 실린 출판작가. 관련사항들이 엉터리였다. 국전 심사위원까지 역임한 중진작가에 관한 자료조차 엉성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때 그는 미술자료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신이 뛰어들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모친을 여윈





김씨는 철도공무원인 셋째형 집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법관이 되라’는 형의 말을 들으며 그는 내심 부담스러웠다. 성적은 그리 우수한 편이 아니었고, 게다가 하고 싶은 일도 미술에 관한 것이었기에 한영고등학교 시절 공부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었다. 그는 자료 스크랩하기에 급급했다. 예비고사 치르던 날 그는 몰래 도망쳐 시험을 피했다.

“당시 형을 비롯해 주위의 눈초리는 따가웠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았어요.”

관심이 다른 분야에 있었기에 남들과 똑같이 시험 치러 대학에 들어 가야만 된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미술자료 전문가의 미래도 밝아 보였다.

방향을 확고히 정한 그는 청계천의 현책방을 뒤져 헌 화집과 원하는 그림이 실린 잡지를 사 보았다. 간혹 돈이 부족할 때엔 잡지 속의 그림만 팔라고 줄라 책방주인에게 미친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고교 졸업 후 몇년간 작은 회사에 취직해 있으면서도 스크랩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었다. 취미생활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 김씨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술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저는 미술자료 모으는 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미술자료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미술과 관계된 일 자리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신문, 잡지의 미술담당기자, 평론가들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보냈다.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당시 홍대 박물관장이었던 현대미술관장 이경성씨에게서 ‘스�크랩을 보자’는 연락이 와 그는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김씨는 자신이 모은 자료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경성씨를 찾았다. 가슴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는 진정제를 한 알 먹기도 했다. 그때까지 혼자서만 꺼내본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기쁨과 자료의 미비함에서 오는 창피함이 교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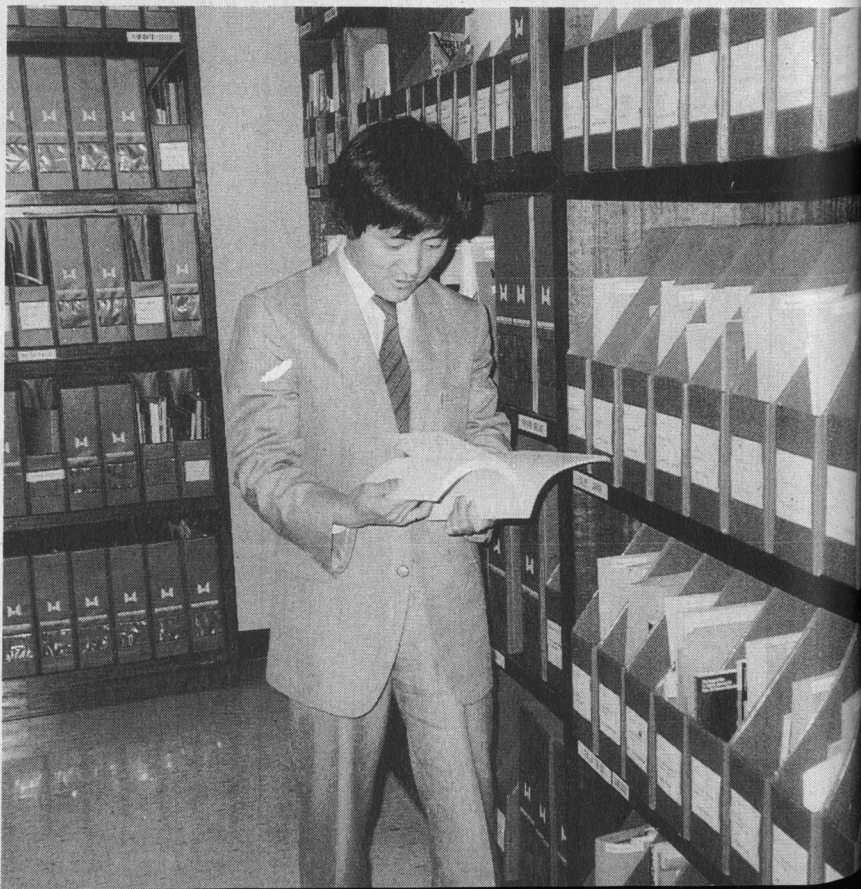
이경성씨는 만족해하지는 않았으나 “당신의 열성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김씨를 격려했다고 한다.

그후 그는 <전시계>라는 미술잡지 사장 최학천씨의 도움으로 미술계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의 열성과 문장력을 보고 <전시계>의 기자로 특채했던 것. 그곳에서 2년여간 미술 기자로 일하며 그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을 터득했다. 80년 언론통폐합으로 <전시계>는 폐간되었으나 그곳에서의 경험이 그를 노련한 자료수집전문가로 만들었다.

그는 원하던 곳으로 한 발짝씩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81년 현대미술관장 이경성씨가 그를 기억하고 박물관 자료실에서 일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처음엔 일당 4천5백원을 받으며 일했지만 그는 숙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느낌이었다. 이전까지 모아놓은 자료들을 박물관 자료실에 모두 기증할 정도였다.

**“아내와 아이들도
내가 하는 일에 응원”**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의 자료 대부분은 김씨가 수집한 것이다.



김씨는 <전시계>에서 함께 기자 생활했던 최현희씨(32)와 82년 12월 화촉을 밝혔다. 서로의 관심분야가 같아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김씨는 연애경험이 없어 고심하다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

그는 월요일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전날인 일요일, 인천 주안에서 동승동까지 올라와 미술회관과 화랑을 다니며 팜플렛을 수집한 에피소드도 있다.

와중에도 그는 지난 85년 성균관대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을 수료, 준사서자격증을 취득했고 지난해엔 국립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에 입학, 실체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 경쟁률이 높아 삼수 끝에 겨우 상아탑에 들어선 것.

“야간에는 미술사 과정이 없어 금속공예과에 진학했으나 대학원에선 미술사를 전공해 이론과 실체가 맞아떨어지는 미술전문가, 미술사가가 되어볼 생각입니다.”

또한 그는 가끔 미술계의 감춰진 부분들을 잡지에 기고하기도 한다. 자료가 탄탄하다보니 우리나라 미술에 관한 한 정확하게 쓸 수 있다.

85년의 <선미술>에 「관람객은 속고 있다—정확한 기록과 자료보존을 위한 제언」을 기고해 많은 작가들이 전시회 팜플렛에서 자신의 수상경력, 학력 등을 속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86년 <성심여대학보>에 「전시회 카탈로그 변천사」, 89년 <월간미술>에 「60여개 공모전, 그 실상과 허상」등을 발표했다. 또한 <월간공예>에 「공예대전, 통계로 본 역사와 현황」, <월간미술>에 「미술상의 실상을 분석한다」등을 기고할 때마다 일간지에 인용 보도되고, 그는 주목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실하게 제공

해준다.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20여년간 땀흘리며 모은 자료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그는 만족한다.

그러나 박물관에서의 위치도 그리 대단한 것은 못 된다. 86년 일용잡급을 면하고 87년부터 별정직 7급으로 승진되었으나, 90년부터 다시 기능직 10등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사실상의 강등이나 다름없다.

그의 월보수는 수당을 합쳐 30만원 안팎. 아직도 전세에 살고 있다. 그나마 9백만원이던 전세는 5백만원이 오른 1천4백만원. 그는 5백만원을 더 줄 능력이 없어 옆 동네에 규모 작은 전세를 얻었다.

“현실적 여건은 좋지 않으나 한국미술사 정리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제 일에 응원을 보내고 있어요.”

아내 최현희씨는 팜플렛 모으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아이들(1남 1녀)은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홀름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저 좋아하는 일만 하다보니 가족에게 물질적으로는 충족시켜주지 못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 마음만은 풍요로워요.”

박물관에서 퇴근하자마자 산업대학 강의시간에 맞춰 등교하는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그는 피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만 행복해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한다. 등록금은 이경성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남미술재단에서 4년 동안 후원해 주기로 했다.

화가 3천5백여명에 관한 사항을 줄줄 꿰고 있는 김달진씨는 건축이나 사진작가의 자료도 수집할 계획이라며 허허 웃는다. 건강하고 여유있는 그의 웃음이 여운을 남긴다.

송재철

경 체 육 관



한국전통무술협회회장 송재철



송재철 체육관장 송재남

★ 주의사항

송재철체육관은 서울본관 한곳뿐이며 자격증을 단 1건도 발부한적이 없습니다. 사진이나 명함을 이용하여 제자나 스승이라고 속이는 경우와 비슷한 이름으로 선전을 하여 혼동시키는 일이 많으므로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무술기록테이프
※인체적성운동전서(적추디스크퇴치교범)
(2가지 30,000원)

지방은 소액환을 아래주소로 보내시면 우송해드립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9-7

송재철 경 체 육 관

관장 송재남

TEL. 542-3785
7140